

# 연천 통현리 고구려 석실분 발굴조사 약보고



2021. 06. 02.

# I . 조사개요

- ◇ 조 사 명 : 연천 통현리 고구려 석실분 발굴조사 용역
- ◇ 조 사 기 간 : 2021.05.25. ~ 2021.06.01.(현재)
- ◇ 조 사 지 역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94-3번지 일원
- ◇ 조 사 면 적 : 발굴 50m<sup>2</sup>
- ◇ 허 가 번 호 : 제2021-0790호 (실조사일수 2.5일)
- ◇ 의 퇴 기 관 : 연천군청
- ◇ 조 사 기 관 : 충북대학교 박물관
- ◇ 조사단구성

조 사 단 장 : 김영관(충북대학교 박물관장)

책 임 조 사 원 : 양시은(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조 사 원 : 이소영(충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준 조 사 원 : 최정수(충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원)

보 조 원 : 임기수(충북대학교 박물관 조교)

이윤용(충북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이 준(충북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 II. 연천의 자연환경 및 역사적 배경

### 1. 자연환경

연천군은 한반도의 중앙부로, 경기도의 최북단에 위치한다. 동쪽은 연천읍과 청산면이 포천시와, 서쪽은 장남면이 파주시와, 북쪽은 신서면이 황해도의 금천로 및 강원도 철원군과, 그리고 남쪽은 전곡읍 간파리가 동두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연천군의 총면적은 675.22km<sup>2</su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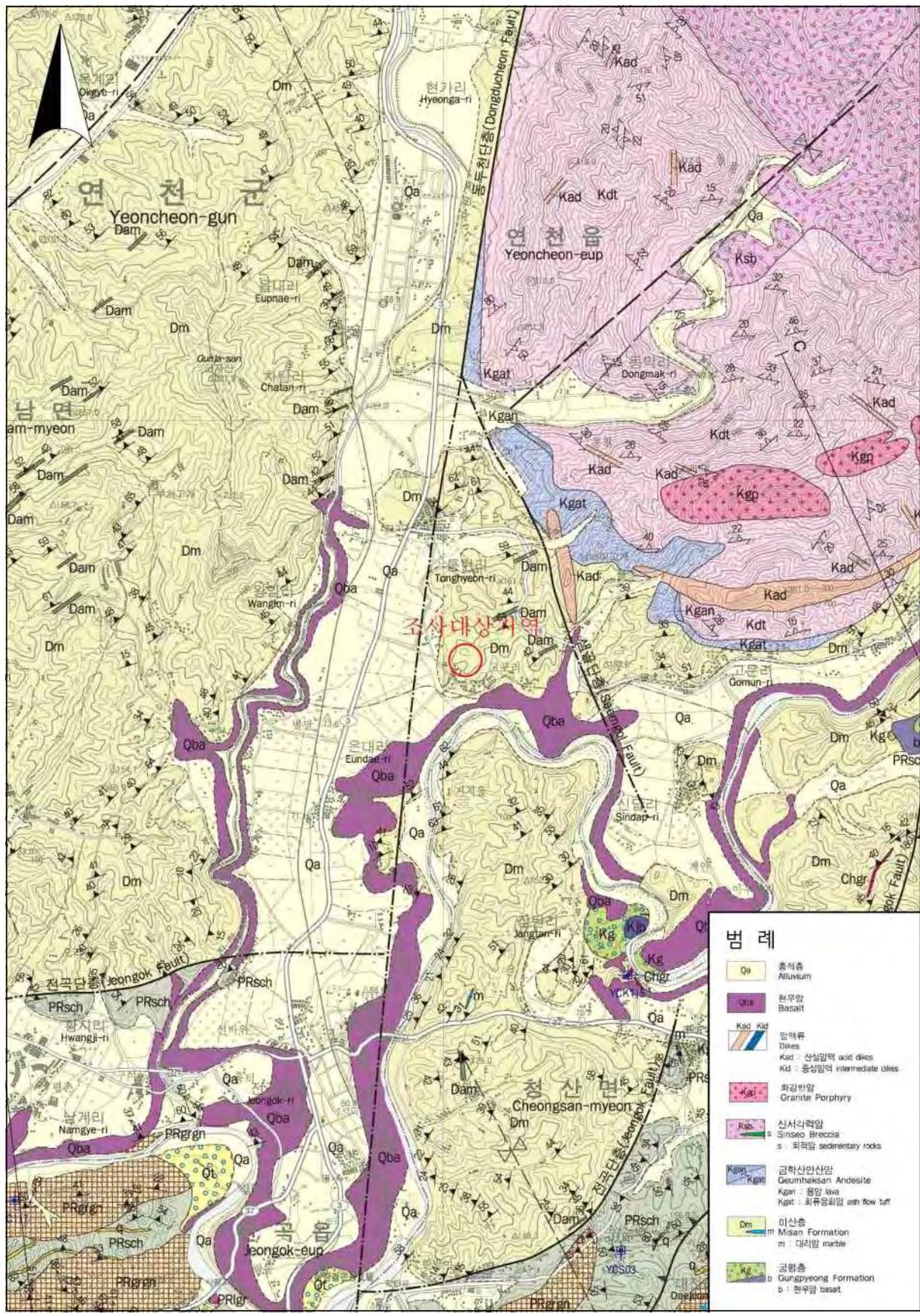
연천군은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에서 나누어진 해발 200m 이상의 산지와 그 사이를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에 의하여 형성된 평야지대로 구성된다. 지형학적으로는 ‘임진분지(臨津盆地)’로 불리기도 한다. 연천군 일대는 전체적으로 북서부와 동쪽의 고도가 높고, 남쪽의 임진강 연안은 해발 100m 이하의 완만한 평지이다.

연천군의 동쪽은 고대산(832m), 지장봉(877m), 향로봉(600m), 종자산(642m) 등이 있으며, 남쪽에도 종현산(589m), 마차산(588m) 등 험준한 산줄기가 형성되어 있다. 북쪽은 천덕산(477m) 줄기가 추가령 구조곡을 두고 고대산과 마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해발 200m 이하의 낮은 구릉이 연속된다. 서쪽은 고왕산(355m), 망해산(272m), 용호산(308m), 환두산(225m) 등이 있다. 연천 중앙에는 군자산(327.8m)이 있다.

산지와 평지 중간에는 산록 완사면이라 불리는 저기복의 침식지형과 해발 50m 이하의 저산성 구릉이 산재하고 있는데, 촌락은 이들 구릉지에 연해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지역은 사면 경사가 완만하고 기복이 작아 홍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식수의 질이 저지대에 비해 양호하며, 인근 야산에서 연료를 쉽게 조달할 수 있어 취락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곳이다.

연천의 지질은 동부 지역의 경우 백악기의 중성화산암과 석영반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임진강 양안과 청산면 일대는 선캠브리아기층의 경기편마암 복합체에 속한 호상편마암이, 통현·전곡·장탄 일대는 현무암이 주로 분포한다. 또한 연천 동부는 한반도를 지질학적으로 양분하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추가령구조곡이 발달해 있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직선상의 열곡(裂谷)은 지질학적으로 한반도를 양분하는 지체구조이자, 오래전부터 남과 북을 잇는 교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 밖에도 일부이긴 하지만 백의리층(白蟻里層)이라 일컫는 미고결 사력층(砂礫層)이 한탄강 및 영평천을 따라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sup>1)</sup>

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도 1] 연천 통현리 1/50,000 지질도(지질정보서비스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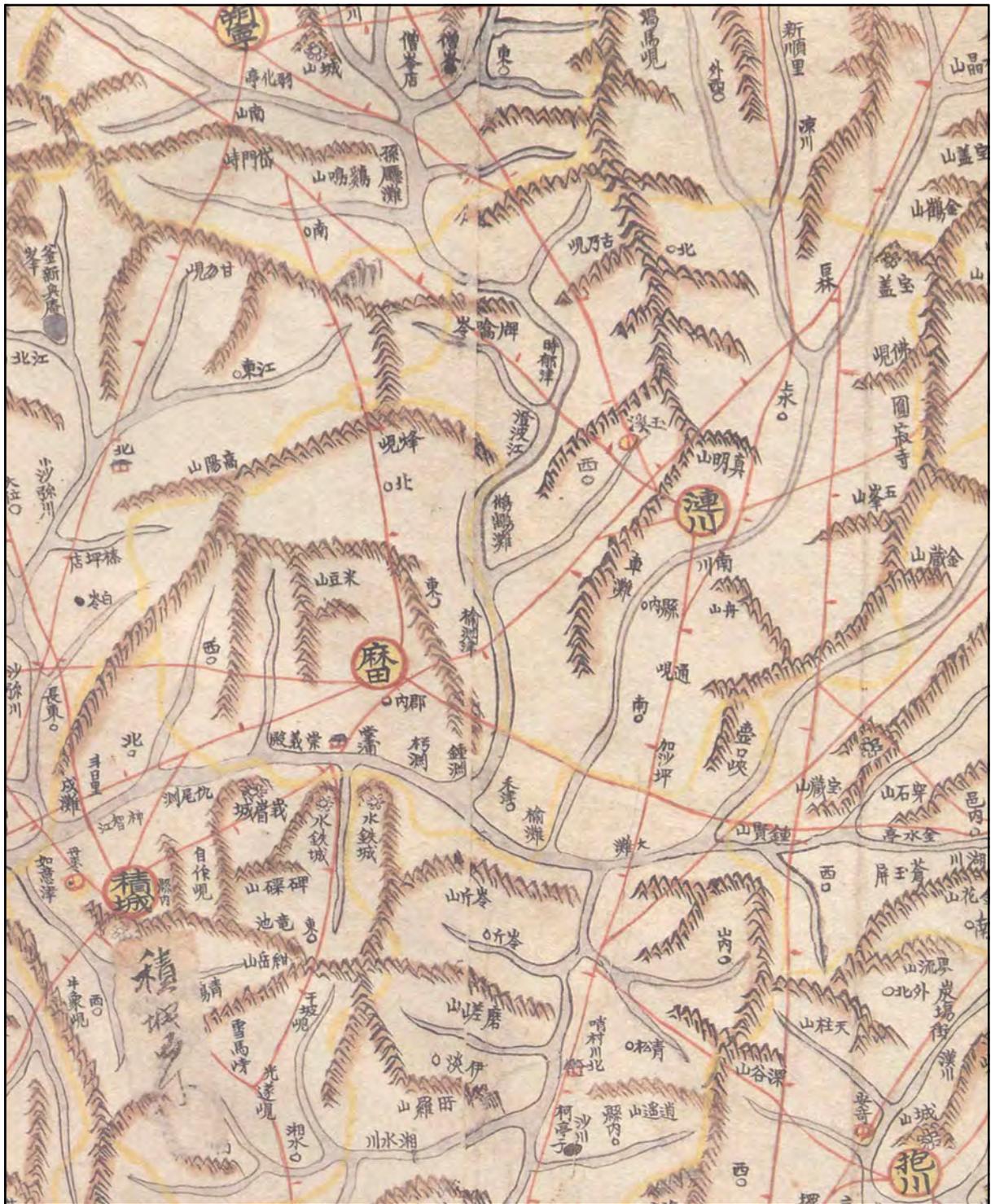
연천군에는 임진강과 한탄강을 비롯한 여러 하천이 흐른다. 임진강은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큰 하천으로, 함경남도 법동군 용포리 두류산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이천, 황해도 금천을 지나 흘러 내려오다 중면 여척리(분단 이후 중면 중사리에 편입)에 유입되어 군남면 남계리의 도감포에서 강원도 평창군 현내면 상원리에서 발원한 한탄강과 합류한다. 합류된 임진강은 학곡리 적석총의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흐르다가 파주시 교하에서 한강과 만나게 된다. 연천군에는 임진강과 한탄강 외에도 마거천, 차탄천, 영평천, 사미천, 강화천 등이 흐르고 있다.

이 밖에도 연천군은 용암대지와 하안단구가 발달해 있다. 용암대지는 유동성이 큰 염기성 화산암인 용암이 굳어져서 형성된 넓은 평탄지로, 연천에서 발견되는 용암대지는 플라이스토세 중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sup> 이 용암대지는 철원·평강 용암대지로 불리는 전곡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탄강 유역의 용암대지와도 동일한 용암으로 형성된 것이다. 연천군의 용암대지는 철원·평강으로부터 울곡까지 약 95km에 걸쳐 분포하며, 그 면적은 125㎢에 달한다. 하안단구는 하천의 바닥을 향하여 계단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과거 하천의 흔적으로, 연천군에서는 주로 임진강과 한탄강의 강안(江岸)에 형성되어 있다. 특히 임진강의 하안단구는 10m가 넘는 높이로 인해, 고대 이래 군사적으로 방어를 용이하게 하는 자연장애물로 활용되었다.

연천의 기후는 한반도의 중부 내륙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남부의 난대성 기후와 북부의 한대성 기후의 점이지대인 대륙성 기후에 속한다. 계절의 온도 차가 심한 편이며, 겨울이 길고 봄은 비교적 짧다. 연평균기온은 10~11℃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100~1,200mm 내외로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

2) 이선복, 2005, 「임진강 유역 용암대지의 형성에 대한 신발견」, 『한국지형학회지』12, 한국지형학회.



[지도 2] 연천 일원 고지도(동여도)

## 2. 역사적 배경

삼국시대 연천 지역은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에 모두 축출되는 4세기 초반에는 백제에 소속되어 있었다. 4세기 중반 백제의 근초고왕은 영토를 예성강 유역까지 확장하였으나, 4세기 후반 광개토왕의 즉위와 함께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연천 지역은 고구려로 편입되게 된다.

<광개토왕릉비>에는 永樂 6년(396)에 광개토왕이 아리수(현 한강)를 건너 백제의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내었을 당시 阿旦城을 포함한 58城 700村을 획득하였음이, 영락 10년(400)에는 5만의 군사를 내려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몰아내고 가야를 정벌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sup>3)</sup> 연천을 포함한 한강유역에 대한 고구려의 본격적인 진출은 475년으로,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는 장수왕 63년에 왕이 직접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漢城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죽인 후 남녀 8천명을 사로잡아서 돌아간 기록이 남아있다.<sup>4)</sup> 장수왕은 평양으로 돌아갔지만, 고구려 군은 백제의 한성, 즉 南城으로 알려진 몽촌토성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금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후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 것은 551년의 일로, 백제, 신라, 가야의 연합군이 고구려 군을 임진강 유역으로 몰아내면서이다. 실제로 임진강 유역에는 강을 경계로 서쪽에는 고구려 성이, 동쪽에는 신라 성이 분포하고 있어,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임진강 유역이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당과의 전쟁에서도 임진·한탄강 유역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일대에는 수많은 관방 유적과 함께 삼국시대의 고분이 남아있다.

우선 삼국시대의 고분 중에서는 중면 삼곶리<sup>5)</sup>와 횡산리<sup>6)</sup>, 미산면 우정리, 군남면 선곡리, 백학면 학곡리<sup>7)</sup>에서 강돌을 장타원형으로 쌓아 만든 적석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무덤의 피장자는 4세기를 전후한 지역집단의 수장층으로 추정되는데, 집단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신답리, 대전리, 원당리, 통현리, 강내리 등지에도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데, 신답리 고분<sup>8)</sup>과 강내리 고분<sup>9)</sup>은

3) 六年丙申 王躬率□軍討伐殘國 軍□□[首]攻取寧八城 …阿旦城… 殘不服義 敢出百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歸穴]□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 將殘主弟并大臣十人 旋師還都 … 十年庚子 教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 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 □[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寐[錦]□□[僕]勾□□□□朝貢

4) 王帥兵三萬 侵百濟 陷王所都漢城 殺其王扶餘慶 虜男女八千而歸 (『三國史記』高句麗本紀 長壽王 六十三年)

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연천 삼곶리 백제적석총발굴조사보고서』.

6)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연천 횡산리적석총: 연천 군남 홍수조절지 사업부지 내』

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연천 학곡리 적석총 -연천 학곡제 개수공사지역 내 발굴조사 보고서-』.

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연천 신답리 고분』.

9)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1지점)』.

발굴조사를 통해 고구려의 봉토석실분으로 밝혀졌다.

연천 강내리 고분군은 군남홍수조절지의 수몰지구에 위치하며, 남한에서는 드물게 9기의 고구려 석실이 3기씩 군집을 이루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연도부가 유실된 1호와 3호를 제외하면 모두 우편재 연도의 횡혈식 석실분이다. 현실의 장단비는 대체로 1.7~2.1:1이다. 고구려 금제구슬과 은제 지환, 은제 팔찌, 유리 구슬을 비롯하여 철제 관고리와 관정 등이 출토되었는데, 8호분에서 출토된 흑색 단경호는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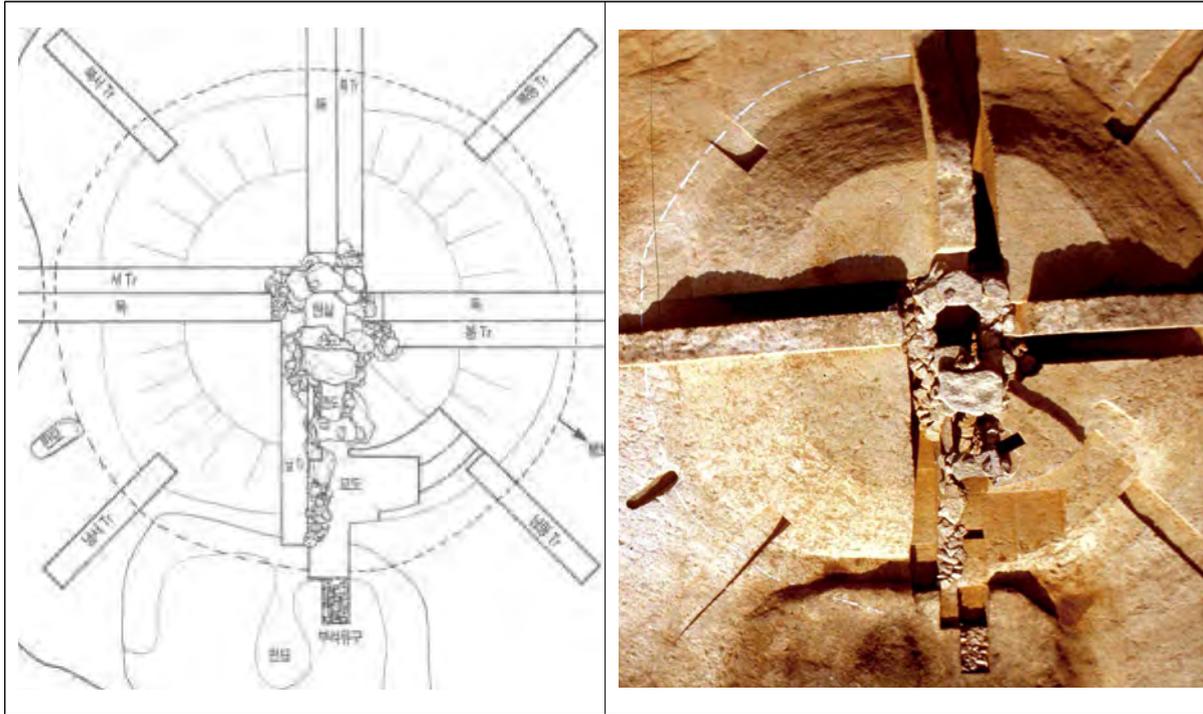


[삽도 1] 연천 강내리 고분군의 전경(좌상), 7호분(좌하), 8호분(우)

연천 신답리고분(경기도 기념물 제210호)에서는 2기의 석실분이 조사되었다. 1호분은 지상식으로 우편재 횡혈식석실분이다. 현실 바닥은 잡석으로 만든 기초시설 위에 회로 미장하였다. 천장구조는 후벽 위에 얹혀 있는 판상석으로 볼 때 삼각고임식이다. 봉분은 지름 약 19m, 높이 3m의 원분이다. 호석이나 주구 등은 확인되지 않고 봉토 가장자리의 기반토가 희미하게 단이 져 있다. 축조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으로 판단된다<sup>11)</sup>.

10) 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漣川 江內里 遺蹟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문화재 시발굴조사(1 구역)-』.

1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2003, 『연천신답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16



[삽도 2] 연천 신답리 고분군 1호분

한편, 연천의 관방유적은 강 유역에 인접한 도하 지점이나, 나루터와 같은 주요 교통로 상에 밀집 분포하고 있다. 관방유적 중 지금까지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덕진산성<sup>12)</sup>, 호로그루<sup>13)</sup>, 은대리성<sup>14)</sup>, 당포성<sup>15)</sup>, 전곡리 목책유구<sup>16)</sup>, 무등리 1보루<sup>17)</sup>, 무등리 2보루<sup>18)</sup>, 육계토성<sup>19)</sup>, 대전리산성<sup>20)</sup>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임진강 이남에 위치한 육계토성은 백제가, 임진강 이북 내지는 서북쪽에 위치한 호로그루, 당포성, 무등리 1, 2보루 등은 고구려가 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탄강 이북에 위치한 은대리성과 전곡리 목책유구 역시 고구려가 축조한 것임이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밖에도 대전리산성의 경우에는 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

- 12)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2004, 『파주 덕진산성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재)중부고고학연구소, 2014, 『파주 덕진산성 -1·2차 학술발굴조사』.
- 1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14, 『연천 호로그루 IV (제3·4차 발굴조사보고서)』.
- 1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 15)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경기도박물관, 2008, 『연천 당포성 II』.
- 16)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0, 『전곡선사박물관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 연천 전곡리성』.
- 17) 서울대학교박물관, 2019,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보고서』.
- 18) 서울대학교박물관, 2015, 『연천 무등리 2보루』.
- 19) 경기도박물관, 2006, 『파주 육계토성』.
- 20) 경기문화재연구원, 2015, 『연천 대전리산성 I -시·발굴조사 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2016, 『연천 대전리산성 II』.

이처럼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에 고구려 성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은, 이들 강 유역에는 수십 km 구간에 걸쳐 높이 10~15m의 현무암 절벽이 형성되어 있어 적들이 쉽게 건너올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는 5세기대에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목책 방어시설을 석축 성벽으로 전환시켜 본격적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중반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이 한강유역을 점령하면서 부터로 여겨진다. 다만 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유적인 전곡리 목책 유구와 은대리성에서는 5세기대 유물이 주로 출토되고 있고 대전리산성은 6세기대 후반에 신라가 축조하였음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6세기 중반 이후 한탄강 유역은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고구려 유적만 확인되는 임진강 유역은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된 한탄강 유역과는 달리 6세기 중후반부터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68년 고구려의 멸망 이후,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당시 군사적 도움을 받았던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買肖城(또는 매소성) 전투였다. 현재 연천 일대에서 매초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곳은 전곡리토성과 대전리산성이다.<sup>21)</sup>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675년 2월 劉仁軌가 이끄는 당나라 군대가 호로하(임진강)를 건너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가, 그 해 가을 9월에는 李謹行이 군사 20만명을 거느리고 매초성에 주둔하자 신라가 공격하여 말 30,380필과 많은 병기를 얻는 등 대승을 거두었다는 기록이 전한다.<sup>22)</sup>

전곡리토성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시굴조사 결과 토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매초성과는 관련이 없다.<sup>23)</sup> 반면 대전리산성의 경우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6세기 중후반에서 7세기 전반 시점에 축성되어 통일신라시대까지 활용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는 신문왕 5년(685)에 전국을 9주 5小京으로 편제하였는데, 당시 연천지역은 한산주(漢山州)에 속하게 되었다. 경덕왕 16년(757)에는 한주(漢州)에 속한 공목달현(工木達縣)에서 공성현(功城縣)으로 개칭되어 철성군(鐵城郡, 철원)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연천지역은 고려시대에는 장주현(獐州縣)으로 개칭되었고, 현종 9년(1018)에는 동주(東州, 철원)에 속하게 되었으며, 문종 23년(1069)에는 경기내(京畿內)가 되었다. 1217년(고종 5)에 거란군이 쳐들어와서 연천의 징파나루(澄波渡)를 지나 고려군과 싸우다가 패배하여 퇴각한 기록이 전한다. 고려 말에는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 조일신의 난(1352년) 및 김용의 난(1363년) 등으로 나라가

21) 민덕식, 1989,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買肖城(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40.

22) 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四 其餘兵仗稱是. (『三國史記』卷第七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 十五年)

23) 서울대학교박물관, 2010, 『연천 고구려성곽(3개소) 발굴 및 정밀지표조사 약보고』.

어지러운 가운데 천도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에는 연천지방으로의 천도를 주장한 것도 있다.

연천의 고려시대 유적으로는 차탄리 석불입상, 고문리 오봉사지, 부곡리 유물산포지 및 지장사지, 군남면 옥계리 유물산포지, 왕징면 북삼리 석불입상, 신서면 도신리 요지, 장남면 원당리 분묘군, 고랑포의 경순왕릉 등이 있으며, 호로그루<sup>24)</sup>와 당포성<sup>25)</sup>에서도 고려 건물지가 발견된 바 있다.

이후 조선시대가 되면, 태종 13년(1413)에 연주에서 현재와 같은 연천으로 지명이 바뀌게 되며, 별호는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장포라 하였다. 연천지방에는 입장서원(臨漳書院), 임강서원(臨江書院), 미강서원(岷江書院)이 있었다. 입장서원은 숙종 34년(1708) 만절당(晩節堂) 임계중(任繼重)에 의해 세워진 주자서원(朱子書院)이 숙종 39년(1713) 입장서원으로 사액 받은 곳으로, 주자와 송시열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였다. 입장서원은 사현사(四賢祠)라고도 불렀는데, 효종 때 세워진 것으로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백학면 고랑포리의 봉잠산 기슭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미강서원은 원래 마전군 군내리(지금의 미산면 동이리)에 있었으며, 허목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인 선조 25년(1592) 10월 중순에는 삭녕에서 경기감사 심대가 이끄는 군대가 왜군과 전투를 벌이다 400여명이 전사하는 전투가 있었다. 또 정발장군 묘역이 그 출생지인 미산면 백석리에 있는데, 정발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부산진 첨사였는데,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하여 공격을 감행해 올 때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연천 일대의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묘가 대부분이고 그 외 사지, 향교, 요지, 신도비, 충효비, 서원, 태실, 부도, 돈대 등이 있다.

24)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2014, 『연천 호로그루 IV (제3·4차 발굴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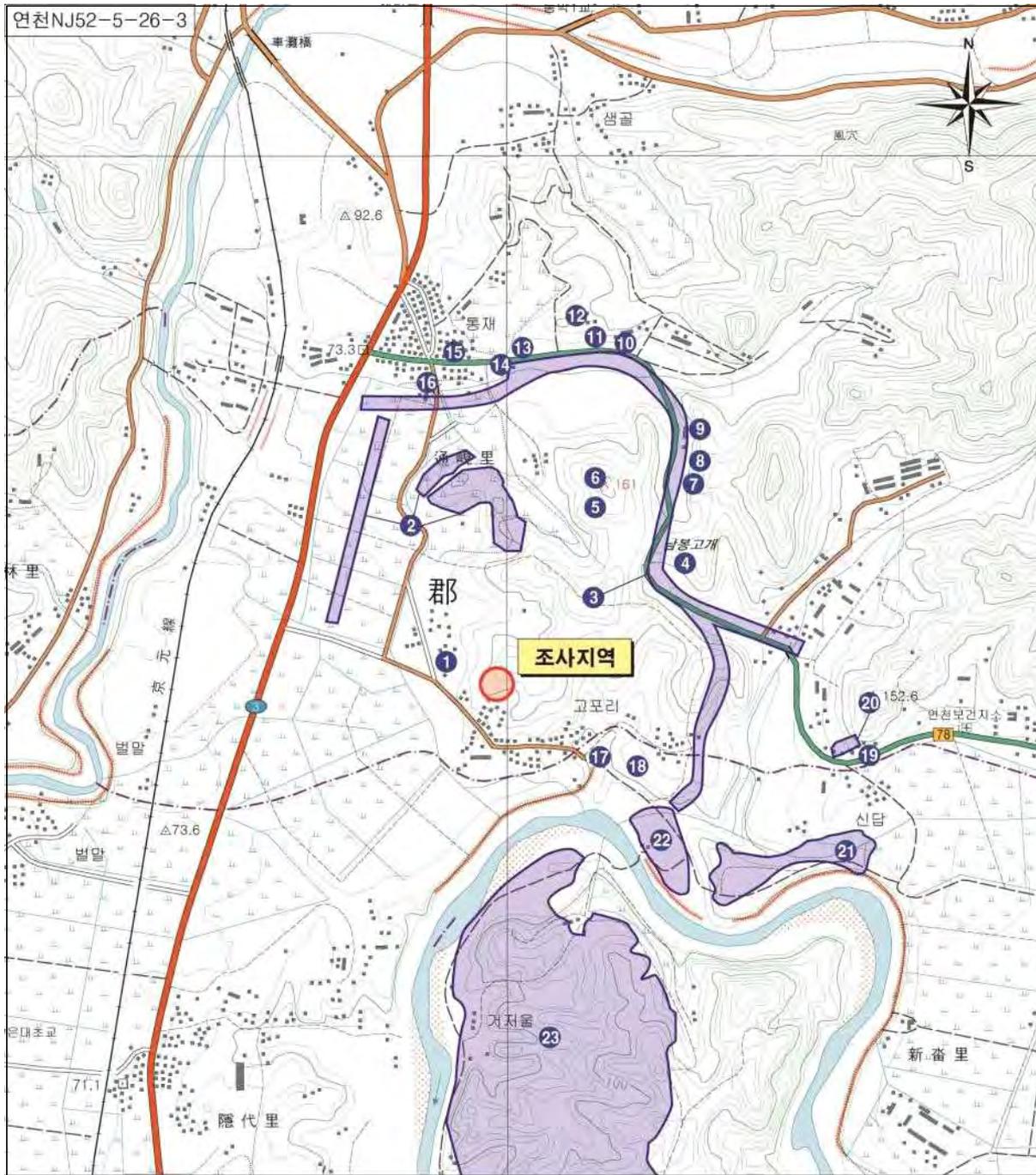
25) 서울대학교박물관, 2013, 『연천 당포성 성외부공사 구역내 시굴조사 약보고서』.



[지도 3] 발굴조사지역 1918년 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삽도 3] 연천의 주요 유적 분포(구글어스)



- 범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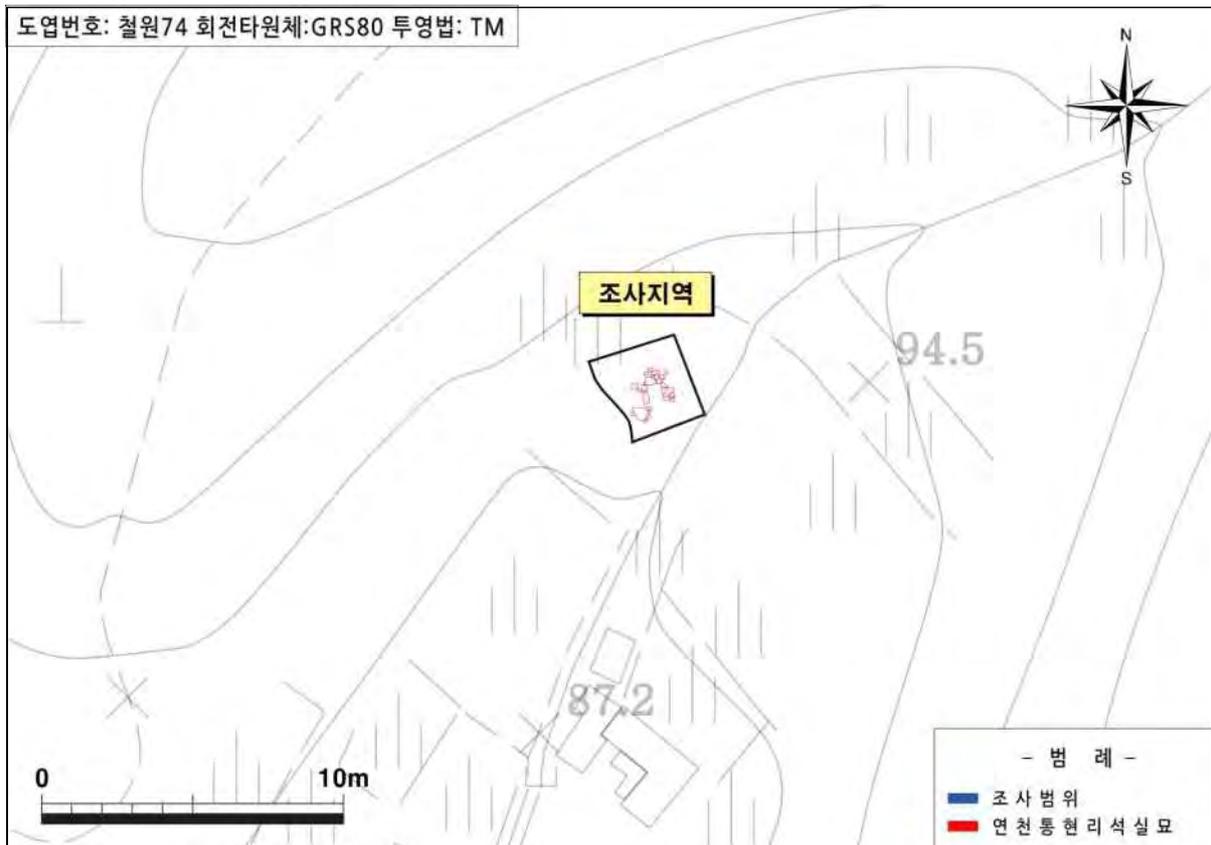
- |                           |              |                                  |
|---------------------------|--------------|----------------------------------|
| ① 연천읍 연천 통현리 고인돌          | ⑨ 연천 김시환 신도비 | ⑰ 연천 신답리 유물산포지4                  |
| ② 연천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 ⑩ 연천 김상성 묘   | ⑱ 연천 신답리 유물산포지5                  |
| ③ 연천 통현-고포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 | ⑪ 연천 김득원 묘   | ⑲ 연천 도정 임기창 영세불망비                |
| ④ 연천 김계하 묘                | ⑫ 연천 김득원 신도비 | ⑳ 연천 고문리 유물산포지①                  |
| ⑤ 연천 김상중 묘                | ⑬ 연천 김청경 묘   | ㉑ 연천 신답리 유물산포지6                  |
| ⑥ 연천 김상규 묘                | ⑭ 연천 김청경 신도비 | ㉒ 연천 장탄-신답리 군용시설 이전부지 내 유적       |
| ⑦ 연천읍 김중윤 묘               | ⑮ 연천 김홍주 묘   | ㉓ 연천 장탄리, 신답리 군용시설 이전 부지내 장탄0F지구 |
| ⑧ 연천 김시환 묘                | ⑯ 연천 김홍주 신도비 |                                  |

[지도 4] 연천 통현리 고구려 석실분 주위 유적 분포도

### Ⅲ. 조사 경과

연천 통현리 고분은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었다<sup>26)</sup>. 고분은 발견 당시부터 인접하여 조성된 민묘와 주변 경작지의 조성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통현리 석실분의 구조와 축조양상 등을 파악하고, 유적에 대한 장기적인 복원과 활용계획을 염두에 둔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연천군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협조를 구해 통현리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50㎡)를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였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제2021-0790호, 실 조사일수 2.5일)를 얻어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삽도 4] 연천 통현리 고구려 석실분 유구배치도(S=1/100)

2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京畿道篇』.



[사진 1] 유적 항공사진(원경)



[사진 2] 유적 항공사진(근경)

## IV. 조사 내용

연천 통현리 고구려 석실분은 성산(520m)에서 남서쪽 뺨은 능선 끝자락의 해발 103m의 계곡부에 위치한다. 고분의 서쪽은 근래에 조성된 민묘로 인해 묘역 일부가 훼손되었다. 또한, 주민의 전언을 통해 이 일대에서 복숭아 농사가 이루어졌고, 고분의 북쪽에는 과수원으로 향하는 길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후대의 경작과정에서 고분을 비롯한 주변 지형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지역에는 발굴조사 착수 이전부터 현무암 재질의 대형 판석 2매가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조사는 고분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판석을 노출하고 동시에 묘역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의 표토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대형 판석에서 서쪽으로 1m 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일부 회가 발라진 2단의 다듬어진 판석재가 발견되어, 석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사진 3] 조사 착수 이전과 이후의 모습

이에 이후 조사는 석실분의 내부 구조와 그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고분과 그 주변은 현대에 이루어진 경작과 과수 식재로 인해 곳곳이 교란된 상태였고, 벽체의 중·상단부와 연도 역시 유실된 상태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토를 30cm 가량 걷어내자 석실묘 벽석의 일부가 노출되었는데, 내부 조사는 삭토된 절단면을 이용하여 ‘—’자형의 토층독을 남기고 퇴적토의 변화에 유의하며 진행하였다. 석실 내부에는 주로 황갈색사질점토와 암갈색사질점토가, 바닥면에서 10cm 정도 되는 높이에는 흑갈색 점질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그리고 석실의 조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현대 묘역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서쪽을 제외한 고분의 북쪽과 동쪽, 남쪽에 각각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바닥에서부터 암황갈색 사질토, 갈색 점질토, 명갈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 풍화암반이 혼입된 갈색사질점토, 부식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분 조성과 관련된 층은 명갈색 사질점토층부터인데, 북쪽은 암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는 방식으로 기초부를 조성하였으나, 남쪽과 동쪽은 능선의 계곡부 사면에 명갈색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를 두텁게 다지는 방식으로 지면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잘 다듬어진 현무암제 석벽의 뒷부분은 잡석을 이용하여 뒷채움하였는데, 암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석에 채워넣는 방식으로 밀봉하였다.

석실묘는 지상식으로 구릉의 사면부에 해당하는 북쪽은 일부 굴착하였고, 구릉의 계곡부에 해당하는 남쪽과 동쪽은 부분적으로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하였다. 석실의 벽체를 축조하면서 분구도 함께 쌓아올린 관계로 굴착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석실의 벽체는 규모 34~85×20~24cm의 대형 현무암 판석재를 사용하여 가로쌓기 하면서 면을 맞추었다. 벽체석의 뒤쪽으로는 불규칙한 형태의 석재를 채워 넣고 점토로 이를 밀봉한 후 다시 일정 높이만큼 흙을 더하여 무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벽체의 안정성을 더하였다.

현실벽의 잔존 양상을 볼 때, 벽체석의 1~2단까지는 서→북→동벽순으로 축조하였으나 3·4단은 북벽을 축조한 후 동·서벽을 구축하였다. 북벽의 잔존 높이는 97cm 가량이다. 연도가 있는 남벽은 유실되어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 동벽과 서벽은 수직으로 쌓았으나 북벽은 조금씩 들여쌓기 하였다. 벽석 사이에는 점토를 채웠고, 벽면은 회를 칠하여 마무리하였다.

석실의 잔존 규모는 267×134×97cm이다. 현실 바닥은 62~85×32~64cm의 현무암제 판석 4매를 깔아 조성하였다. 현실의 서편에는 할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시상의 범위는 163×64cm이다. 천장부와 연도부는 남아있지 않다.

이 밖에도 훼손으로 인해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 4] 토층 ①전경(공중촬영) ②현실 토층 ③북벽 Tr. ④남벽 Tr. ⑤동벽 Tr.



[사진 5] 고분 전경



[사진 6] 통현리 석실분 세부 ①현실 ②북벽 ③서벽 ④동벽 ⑤뒗채움석

부록. 남한지역 고구려 석실분 속성표

유적명	입지	분포	위치	축조 재료	천장 구조	바닥 시설	장 축	석실 제원(cm) 길이×폭×현재 높이	연도 위치	연도폐쇄 방법	연도 제원(cm) 길이×폭×현재 높이	출토유물	비고	
연천 강내리 고분군	1호분	구릉 말단	3기 3열	반지하식	할석	-	중앙(천석)	남서	257×120×23	우편재	천석+할석	-	관정	
	2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	불다짐	남서	258×145×78	우편재	천석+할석	66×88×?	관정, 관고리, 금제 구슬, 유리구슬, 은제 팔찌, 철못	
	3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	-	남서	277×157×41	우편재	-	-	-	
	4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	불다짐	남서	255×148×40	우편재	천석+할석	85×105×?	관정, 관고리	
	5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	불다짐	남서	246×142×67	우편재	천석+할석	95×81×?	관정	
	6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	불다짐	남서	257×141×53	우편재	천석+할석	114×83×?	관정	
	7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	불다짐	남서	254×140×175	우편재	천석+할석	92×83×?	관정, 관고리	
	8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삼각고임	불다짐	남서	262×141×198	우편재	천석+할석	104×90×?	관정, 관고리, 흑색마연호, 금제구슬, 유리구슬, 은제 팔찌	
	9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삼각고임	불다짐	남서	190×92×107	우편재	판석 2매	110×73×?	관정	
연천 신담리 고분군	1호분	구릉 말단	2기	지상식	할석+회	삼각고임	판석	남동	205×170×150	중앙(?)	-	310×100~115×130	병형토기	
	2호분	구릉 말단		지상식	할석	-	판석	남동	175×135×190	우편재	괴석 2매	75×?×?	-	
성남 창곡동 유적	1호 석실	구릉 능선	3기	반지하식	할석	-	불다짐 양측(쇄석)	북남	280×212×140	우편재	-	128×96×?	관정	
	2호 석실	구릉 능선		반지하식	할석	-	양측(쇄석)	북동	326×196×82	-	-	-	관정, 금동제 이식	
	3호 석실	구릉 능선		반지하식	할석	-	불다짐 양측(할석)	북동	232×182×70	우편재	-	180×64×?	관정	
성남 판교동 유적	1-1호 석실	구릉 말단	2기 (쌍혈분)	지상식	할석	삼각고임	불다짐	남서	170×125×110	우편재	판석 2매	240×70×?	-	
	1-2호 석실	구릉 말단					불다짐	남서	190×150×110	우편재	할석	180×80×?	철도자	-
	2호분	구릉 말단					-	남서	185×140×120	우편재	할석	220×80×?	-	
용인 보정동 고분군	1호분	구릉 말단	2기	반지하식	할석	삼각고임	판석	동남	260×170×150	우편재	할석	180×100×?	삼발형 토기, 관정, 관고리	
	2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삼각고임	판석	동남	250×190×130	우편재	-	180×100×?	흑색마연호, 관정, 관고리	
	소실 21호분	구릉 곡부		단독	반지하식	할석	-	-	동남	250×182×112	우편재	-	190×84×?	-
용인 신갈동 유적	구릉 곡부	단독	반지하식	할석+회	-	불다짐 좌측(할석)	북서	159×117×100	우편재	할석	170×64×48	-		
화성 청계리 유적	1호 석실	구릉 곡부	단독 (쌍혈분)	지상식	할석	-	-	남	175×455×100	우편재	-	206×66×2	-	
	2호 석실	구릉 곡부				-	-	남	208×145~165×100	우편재	할석	140×74×22	-	

서울 경기

유적명		입지	분포	위치	축조 재료	천장 구조	바닥 시설	장 축	석실 제원(cm) 길이×폭×현재 높이	연도 위치	연도폐쇄 방법	연도 제원(cm) 길이×폭×현재높이	출토유물	비고	
영일 신천리 유적	1호분	구릉 말단	2기	반지하식	할석	-	좌측(할석)	남서	180×120×110	우편재	판석	150×52-68×75	-	강원	
	2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	-	남서	150×120×100	우편재	판석	170×45-50×90	-		
춘천 신매리 석실고분		구릉 말단	단독	지상식	할석+회	삼각고임	회다짐 좌측(할석+회)	남동	188×140×142	우편재	판석	208×75-85×68-98	-		
춘천 만천리 고분군	1호분	구릉 말단	2기	지상식	할석+회	-	불다짐	남	160×110×85	우편재	판석+할석	230×80×?	-		
	2호분	구릉 말단		지상식	할석	-	불다짐 좌측(할석)	남	159×128×108	우편재	-	156×68×?	-		
춘천 방동리 고분군	1호분	구릉 말단	2기	지상식	할석+회	삼각고임	-	남동	175×125×120	우편재	판석+할석	175×60×70-80	-		
	2호분	구릉 말단		지상식	할석+회	삼각고임	좌측(할석)	남동	210×130×134	우편재	-	230×60×110-130	-		
춘천 천전리 유적		충적대지	단독	반지하식	할석+회	-	불다짐+회 양측(할석+회)	남서	203×160×71	우치중	판석	179×56-62×?	-		
춘천 군자리 유적		구릉 말단	단독	반지하식	할석	삼각고임	불다짐 좌측 (할석+천석)	동서	179×140×96	우편재	판석+괴석 +잡석	150×66×?	토기편		
춘천 중도동 유적	C1-1호묘	충적대지	-	지하식	할석	-	-	북동	388×220×80	-	-	-	관정, 소문단경호		강원
	C2-1호묘	충적대지	-	지하식	할석	-	양측(쇄석)	북동	190×55×73	-	-	-	금제 귀걸이		
	F-삼국시대 분묘	충적대지	-	지하식	할석	-	양측(쇄석)	북동	208×80×45	-	-	-	단경호, 유리구슬, 금제이식, 철제환		
화천 거례리 유적		충적 대지	단독	반지하식	할석+회	-	천석+판석	남동	290×250×40	우편재	판석	270×60×?	관정		
홍천 역내리 고분		구릉 말단	단독	반지하식	할석	삼각고임	좌측(할석)	남동	176×125×96	우편재	할석	150×57×80	철제 팔찌		
홍천 철정리 고분군	2호분	충적대지	3기	반지하식	할석	-	좌측 (천석+할석)	남서	167×128×47	우편재	천석+할석	85×70×?	-		
	3호분	충적대지		반지하식	할석+판석	-	좌측(천석)	남동	159×105×46	우편재	판석	112×55×?	-		
	4호분	충적대지		반지하식	할석	-	판석	동남	205×165×95	우편재	할석	118×65~70×?	-		
충주 두정리 고분군	2호분	구릉 말단	5기 1열	반지하식	할석+회	-	불다짐	남동	248×135×56	우편재	-	94×55×?	구형호, 관정		
	3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	불다짐	남동	260×137×35	우편재	할석	?	관정		
	4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	불다짐	남동	238×131×50	우편재	-	140×65×?	은제 반지, 관정		
	5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	불다짐	남동	238×142×32	우편재	-	?	관정		
	6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	불다짐	남동	250×123×29	우편재	-	120×?×?	흑색마연호, 관정		
충주 단월동 고분군	5호분	구릉 말단	2기	반지하식	할석	-	회다짐 양측(쇄석)	북서	290×120×?	우편재	-	150×70×?	인골, 청동제 팔찌, 금동제 이식, 청동 제 반지, 토기	충청	
	10호분	구릉 말단		반지하식	할석	-	회다짐	북서	130×120×?	우편재	-	160×80×?	단경호, 평저호, 금동제 이식, 청동제 이식, 은제 반지, 은제 팔찌, 도자, 과 대면, 철편, 관정		